

지스트, 4년 만에 대면 입학식 개최

- 2월 23일(木), 학사과정 217명, 대학원과정 220명 총 437명 입학
- 지스트 학사과정 정시 모집 경쟁률 123.8대 1...역대 최고



▲ 지스트가 2월 23일(목) 오전 11시 지스트 오룡관 대강당에서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학년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개최하고 40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지스트는 2월 23일(목) 오전 11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학사과정 217명, 석사과정 134명, 석박통합과정 46명, 박사과정 40명 등 총 437명의 신입생과 가족, 교수와 직원 등 약 500명 참석한 가운데 인원의 제한 없이 대면 방식으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김상돈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김기선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에 따라 입학생 대표 ▲박재현(기계, 박사과정) ▲임영준(물리, 통합과정) ▲김민준(AI, 석사과정) ▲윤라빈(기초, 학사과정) 학생의 입학선서 및 지스트 정신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입학생 27명에게 총장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김기선 총장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의 상당 기간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보낸 2023학년도 입학생들을 이렇게 대면 방식으로 입학식에서 직접 마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스트에서의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유익하고 안전한 캠퍼스 생활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지스트 학사과정의 정시 지원자는 총 1,238명으로 123.8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스트는 학사과정에 국내 최초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수학과 과학 등 이공계 과목뿐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필수 강의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소수정예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